

## 중국의 메콩강 유역 개발 참여: 초국경 경제협력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경쟁을 중심으로\*

이승은\*\*

###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GMS의 개황            |
| II.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의 틀          | IV. GMS에 나타난 협력·경쟁 메커니즘 |
| 1. 동남아 지역발전으로서의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 | 1. 국가적 차원에서의 GMS 협력     |
| 2. 중국의 대(對) 동남아시아 지역협력      | 2. 국제적 차원에서의 GMS 협력     |
| 3. 분석의 틀                    | 3. 초국가적 차원에서의 GMS 협력    |
|                             | V. 결론: 요약과 함의           |

### | 논문요약 |

메콩강 유역 경제권(Greater Mekong Subregion, 이하 GMS)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동남아시아 5개국과 중국의 윈난성과 광시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의 프로젝트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연결, 경쟁, 커뮤니티(Connectivity, Competitiveness, Community)'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빈곤 퇴치, 인적 자원 개발, 무역 투자 협력을 통한 단일경제권 출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본 논문은 중국의 메콩강 유역 개발 참여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이익을 둘러싸고 '협력'과 '경쟁' 메커니즘을 동시에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프로젝트 현황 등을 고찰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글로벌한' 특성의 두 가지 측면

\* 본 논문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유익한 제언을 해주신 세 분의 익명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은 필자의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을 교직시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중국의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첫 번째 유형은 지역적인 특성이 강하나 글로벌한 특성이 약하게 나타나는 ‘국가적’ 차원이다. 이는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반영된다. 두 번째 유형은 ‘국제적’ 차원으로,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해 있는 두 정부 사이에 일어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중앙정부와 다른 GMS 국가의 중앙정부, 중국의 중앙정부와 다른 GMS 국가의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이다. 세 번째 유형은 ‘초국가적’ 차원으로 중국과 국제기구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특히, 초국가적 차원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때로는 공동의 목표를, 때로는 자국의 목표를 위해 매진하는 ‘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지역을 GMS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자국(지역)의 이익을 제고하며 협력하는 장(field)이라고 분석한다.

• 주제어: 메콩강 유역 경제권, 중국, 동남아, 지역협력, 이해관계자

## I. 서론

1999년 중국 공산당 15기 4중전회에서는 『중국공산당의 국유기업 개혁 및 발전에 관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中共中央關於國有企業改革和發展若干重大問題的決定)』이라는 문건이 통과되었고, 이어 국무원은 ‘서부대개발 전략(西部大開發戰略)’의 실시를 발표하였다. 2001년 3월 발표된 『10차 5개년 계획 강요(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个五年計劃綱要)』에서는 서부대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3단계 국가발전전략<sup>1)</sup>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50년에 걸친 장기계획이다. 서부대개발은 3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1단계인 초기단계는 2000-2005년, 2단계(2006-2015년)는 대규모개발 단계이며, 3단계는 서부지역의 전

1) 2000년까지 온바오(溫飽), 2020까지의 소강(小康)사회 건설, 2050년까지 대동(大同)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다.

면적인 발전단계로 2015-2050년까지이다(산업자원부 중국협력기획단 2003, 3).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충칭(重慶), 간수(甘肅), 구이저우(貴州), 칭하이(青海), 산시(陝西), 쓰촨(四川), 윈난(雲南)성과 광시장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네이멍구(內蒙古), 닝샤(寧夏), 신장(新疆) 등의 서부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다. 서부대개발 전략 실시 당시, 이 지역은 중국 전체 면적의 약 71.4%를 차지하고, 28.8%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성과는 약 20%에 불과했던 지역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부지역을 중국의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여기며, 국내 비즈니스계의 관심이 점차 쓰촨성, 충칭 등 몇몇 지역으로 옮겨져 왔고, 서부지역과 관련된 학계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박상수 2013). 이러한 관심과 다르게 우리나라와의 교역·투자 비중이 크지 않은 서남(西南)지역은 국내 학계와 비즈니스계의 관심을 받지 못했으며, 서부지역 중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중국 변경지역에 위치한 서남(西南)지역에 대한 이해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의 주요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투자 방향의 축이 동부 연해 지역에서 서부지역으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쓰촨성, 충칭 등과 같은 지역들이 서부지역의 관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sup> 한편, 제조업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지 않고, 다른 서부지역에 비해 우리나라의 향후 투자 및 진출의 가능성도 낮은 윈난성<sup>3)</sup>과 광시장족자치구<sup>4)</sup> 등의 서남지역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경제적 실익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서남지역의 중요성은 낮은

2) 2000년대 이전까지 한국의 투자는 산둥(山東), 장수(江蘇), 랴오닝(遼寧), 저장(浙江)성 등에 집중되었으나, 점차 우리나라의 중부지역 및 서부지역에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3) 국내에서 진행된 윈난성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성과는 주로 민족학적 관점에서 논의된 것으로, 김선자(2011, 125-171), 류성민(2010, 149-193), 무용웨·양원순·예동근(2011, 121-133)의 논의가 있다. 둘째, 변경 지역의 갈등 등에 관한 역사학적 관점에서 논의된 것으로, 류인선(2012, 155-178), 유장근(2011, 1-32)의 논의가 있다.

4) 광시장족자치구 연구는 주로 광서북부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박승찬(2009, 131-158), 정환우(2009), 허홍호(2013, 451-471)의 논의가 이에 해당된다.

편이겠지만, 이 지역의 지정학적 입지를 바탕으로 한 향후 발전가치를 눈여겨본다면<sup>5)</sup> 이 지역은 단순히 낙후된 지역만이 아닐 것이다. 2009년 후진타오 정부는 윈난성을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잇는 ‘교두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고(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2011; Summers 2013), 윈난성과 광시장족자치구 정부도 이러한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논문은 중국의 대동남아시아 지역협력의 ‘창구’이자 ‘사례’인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메콩강<sup>6)</sup>은 칭장(靑藏) 고원에서 발원하여 중국 윈난성,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지나 남중국해로 유입되는 4,200km 길이의 하천으로,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이다(손승호 1996, 75 재인용). 이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메콩강 유역 경제권[Greater Mekong Subregion (이하 GMS), 大湄公河次區域合作]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동남아시아 5개국과 중국의 윈난성과 광시장족자치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의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으며, ‘연결, 경쟁, 커뮤니티(Connectivity, Competitiveness, Community)’, 이른바 ‘3C’를 주요 기치로 삼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빈곤 퇴치, 인적 자원 개발, 무역·투자 협력 활성화를 통한 단일경제권 출범 등을 설립 목적으로 삼았고,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참여한 동남아시아와의 지역협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GMS 개발의 주체(중국 중앙정부·지방정부와 동남아 국가의 중앙정부·지방정부, 국제기구 등)를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GMS를 중국과 동남아 국가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이 자신의 이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장(field)이라고 분석한다. 본 논문은 메콩강 유역 경제권 개발이 중국의 대동남아 전략의 일환으로 어떠한 목적과 배경을 지니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III장에서는 GMS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GMS 각국 현황을 살펴본다.

5) 심상형(2013, 10-13)의 논의를 참고할 것.

6) 중국어의 명칭은 란창강(瀾滄江)임.

IV장에서는 GMS 개발에서의 중국, 동남아, 국제기구 등의 각 이해관계자가 어떠한 형태로 개발에 참여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전개양상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함의를 제시하며 결론을 맺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의 틀

### 1. 동남아 지역발전으로서의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

그동안 우리나라 학계에서 진행되어 온 메콩강 유역에 관한 연구의 상당수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는 주로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을 동남아 GMS 국가의 지역발전 수단 및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로는 역사학적 접근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예로는 메콩강 유역의 상호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명한 조흥국(2000)의 논문을 들 수 있겠다. 둘째, 지역협력 차원의 분석이다. 김홍구·박장식(2000)은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메콩강 하류 국가의 지역협력 배경과 발전과정을 다루었다. 양승윤·이요한(1997)은 GMS 개발사업을 경제적, 국가적, 국제적 의미로 구분하여 살펴보며, 이 사업이 ‘하나의 동남아화’를 이루려는 목표에 근접하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김정인·최동주(1998, 211)는 메콩강 유역 개발과 같은 국제협력에서 발생하는 갈등 관계에 주목하였으며, “중국이라는 강국이 역내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메콩강 유역은 ASEAN과 같은 협의의결기구가 결여된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메콩강 유역 정부 간 개발과 환경협력방안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요한(2014)은 메콩강 유역의 수력자원 개발을 둘러싼 라오스의 전략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다. 셋째, 메콩강 유역 국가와 한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등과 같이 한국의 투자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어 왔다.

메콩강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의 동남아 국가의

생활터전이자 경제적 ‘젓줄’이라고 볼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는 당연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동남아시아의 시각을 안고 진행된 이러한 연구가 국내 학계의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에 바탕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러한 연구에서는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메콩강이 중국 윈난성과 이들 국가 모두를 관통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중국과 GMS와의 연계성을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 2. 중국의 대(對) 동남아시아 지역협력

메콩강 유역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이와 관련된 ‘중국’의 정책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었으나(조운수 2000, 146), 최근 들어 중국의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에 관한 입장을 정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 지역협력’을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틀이자 사례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 지역협력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래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이 동남아시아지역에서 행하는 지역협력이 중국 혹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관점의 연구이다. 조운수(2000)는 중국이 이 정책을 추구하는 이유를 경제적, 대외정책적, 안보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는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대내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경제적 측면, 주변국가들과의 우호 관계 정립을 위한 대외 정책적 측면, 메콩강 유역을 중국이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에 진출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른바 중국의 ‘남진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안보의 측면이다. 이러한 시각은 류석춘·최진명(2012) 논문의 바탕이 되고 있으며, 저자들은 중국의 이러한 지역협력 참여가 “소프트파워”인가 ‘하드파워’인가에 관해 논의한다. 이 연구에서 류석춘·최진명은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 지역협력으로서의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을 연구하면서 중국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

인 목적으로 삼는 ‘하드파워’의 행사라고 주장하였다. Goh(2014)는 중국이 동남아시아에 영향력(influence)을 행사하는 것의 일종으로서 메콩강 유역 개발협력을 이해하였다. 같은 글에서 저자는 주변국이 중국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preference multiplier)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틀은 ‘경제적 지역주의(economic regionalism)’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중국의 대 동남아 지역협력의 성과 및 역할보다 이러한 초국가적 행위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는 연구이다. Cheng(2013)은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이 중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 관계에서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사례라고 분석하였다. 이는 Li(2014)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저자는 중국 외교 정책에 있어 행위자(actors)의 다양화를 제기한 연구는 있었으나, 중국의 국제관계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아직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지방정부의 자유주의(local liberalism)”라고 하였다(Li 2014). 이와 비슷한 시각으로, 이동률은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소지역 경제협력에 있어서 중국의 중앙정부 또는 민간의 역할보다는 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역할을 위임받은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김수한 2014, 130 재인용).<sup>7)</sup>

셋째는 중국의 대 동남아 지역협력 혹은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을 연구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시각이다. 이요한(2014)은 라오스 수력발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국, 라오스 정부, 주민, 국제기구, 참여 기업 등의 시각을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넷째, 중국의 이러한 참여를 이분법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논의이다.<sup>8)</sup> 조홍국(2012)은 인도차이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팽창이야말로 중국이 메콩강 유역 개발에 참여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였고,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측 학자들은 중국이 GMS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동남아시아 역내

7) 중국과 변경국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동률(2013, 181-205)의 논의를 참고할 것.

8) 이러한 관점은 류석춘·최진명(2012, 137-173)의 논의를 참고할 것.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Lim 2008; Zhu 2010), 해외 학자들은 중국의 독보적인 경제발전전략을 통한 환경 문제, 관련 지역의 피해 등을 강조하고 있다(Goh 2004; Menniken 2007; Onishi 2007).

### 3. 분석의 틀

이 글에서는 중국의 관점에서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을 분석하며, 중국이 동남아시아에 대한 지역협력의 일환이자 사례로 설명하고자 한다.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는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 국제기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글로벌한’ 특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교직시켜 <그림 1>과 같은 모형<sup>9)</sup>을 설정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중국이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첫 번째 유형은 지역적인 특성이 강하나 글로벌한 특성이 약하게 나타나는 ‘국가적(national)’ 차원이다. 이는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sup>10)</sup>가 반영된다. 두 번째 유형은 ‘국제적(international)’ 차원으로,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해 있는 두 정부 사이에 일어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중앙정부와 GMS 국가<sup>11)</sup>의 중앙정부, 중국의 중앙정부와 GMS 국가의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이다. 세 번째 유형은 ‘초국가적(transnational)’ 차원으로 중국과 국제기구 간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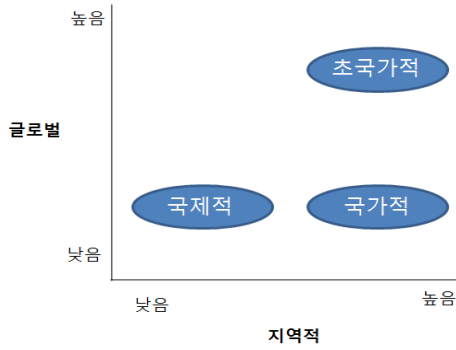
---

9)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나, 아시아개발은행이 시작한 프로젝트이기에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경우 우선적으로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기로 한다.

10) 국내 학계에서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에 관한 연구는 김정계(2003, 69-98), 기상석 문홍호(2005, 7-37)의 논의를 비롯하여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국가 간 관계에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논한 글로는 Li, Mingjiang(2014, 275-293)의 논의를 참고할 것.

11) 본고에서 ‘다른 GMS 국가’ 혹은 ‘동남아 소재 GMS 국가’는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을 가리킨다.

<그림 1>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림 2> 분석의 틀

국가적	국제적	초국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경제 발전 도모, 교두보</li> <li>• 중앙정부: 국내 문제 해결 수단</li> <li>• 지방정부: 업적, 자율성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국의 경제적·외교적 이익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지역 발전 도모</li> <li>• 해당 기구의 이미지 제고</li> </ul>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그림 2>와 같이 중국의 메콩강 유역 경제권 개발사업을 국가적, 국제적, 초국가적 관점에서 각 행위주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적 차원은 국가의 발전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GMS 사업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한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목적이 다소 다른데, 중앙정부는 국내에 산재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정부는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업적을 쌓아 해당 지방정부의 경제발전수준을 향상시켜 자율성 확보에까지 연결시키고자 한다. 국제적 차원은 중국 및 GMS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과 외교적 실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초국가적 관점은 이들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제기구 등이 GMS 사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관련기구의 이미지를 제고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분석의 틀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Ⅲ. GMS의 개황

메콩강 유역 경제권은 중국의 윈난성과 광시장족자치구와 더불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동남아시아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과 <그림 3> 참고).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는 상황하에 메콩강 유역에서 자본의 부족으로 야기되는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개하는 대규모 사업이다(심의섭 1997, 68).

<표 1> GMS 국가<sup>12)</sup> 개황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윈난성	광시					
면적 (천km <sup>2</sup> )	39.40	23.67	18.1	23.68	67.66	51.31	32.96
인구 (백만 명)	46.59	52.40	14.68	6.66	61.65	6.67	89.71
접경 국가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라오스, 태국	중국,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라오스,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캄보디아
GDP (억 달러)	206.5	163.32	14.12	9.17	55.27	365.97	155.57
1인당 GDP (달러)	4428.12	3516.1	955.72	1407.64	906.41	5686.28	1752.4
FDI (억 달러)	21.89	7.48	8.41	2.48	11.91	159.12	72.53

\* 특별한 표기가 없는 경우는 2012년 데이터임 / GDP는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터 참고

\*\* ADB(2013); CEIC Database; Deutsche Bank Research(2015a; 2015b);  
한국수출입은행; 云南統計年鑒(2013); 章遠新(2006, 1)

이 지역에서는 4개의 경제회랑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북·남 경제회랑은 윈난성 쿤밍에서 태국 방콕에 이르는 지역이다. 이 북남 경제회랑의 일부는 태국 북부, 미얀마 동부, 라오스 북서부의 국경

12) 통상적으로 메콩강 상류국가는 중국이며, 라오스와 태국은 중류국가에 속한다. 캄보디아, 베트남은 하류국가로 분류한다.

중국의 메콩강 유역 개발 참여:  
초국경 경제협력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경쟁을 중심으로 51

접촉 지대이자 아편 생산지인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황금 삼각지대)’과 겹치기도 한다(Chin 2009). 동·서 경제회랑은 베트남 중부의 항구에서 미얀마 인도양 연안에 이르며, 남부 경제회랑은 방콕을 기점으로 프놈펜, 호치민을 거쳐 베트남의 붕 타우(Vung Tau)에 이르는 구간이다. 또한, 산업회랑(industrial corridor)은 중국 윈난성 쿤밍 혹은 광시 난닝에서 싱가포르까지 이르는 경로이다.

<그림 3> GMS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s) 현황



\* Google maps 및 이효찬(2014) 등의 논의를 참고함

GMS의 발전단계는 <표 2>와 같이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도로와 철도 등의 기초설비를 구축하는 것이며, 2단계는 국경지역의 효율적인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경 간 무역협정(cross-border trade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단계로 2011년에 완료되었다. 3단계는 국경 이외의 다른 지역까지 선진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완공(예상)시점은 2014년이다. 4단계는 상하수도, 폐기물 등의 전반적인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며,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 단계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국경지역에 경제 특별구역을 설립하고자 하며,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lt;표 2&gt; GMS 경제회랑 프로젝트의 단계별 내용

단계	주요 내용	완료된 시점
1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transport corridor)	진행중
2	국경지역의 효율적 교통시스템 구축, cross-border trade agreement(trade and transport facilitation corridor)	2011
3	국경 이외의 지역까지 선진물류시스템 구축(logistics corridor)	2014
4	상하수도, 폐기물 등 전반적인 경제 인프라 구축(urban development corridor)	2016
5	민간투자 증진, 생산라인 구축, 국경지역 경제 특별구역 설립(economic corridor)	2018

\* 이효찬(2014, 12); 조대현(2011, 70)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무역규모는 2001-2010년 동안 약 7배 증가하였다. 중국의 대아세안 무역은 적자 상태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 중국 간의 무역은 중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동남아 GMS 국가(CLMV) 간 무역규모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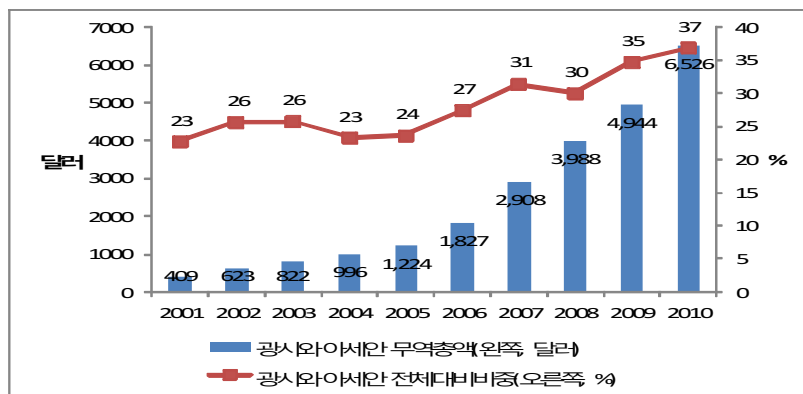
&lt;표 3&gt; 2001-2010년 중국과 동남아시아 GMS 4개국 간 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중국과 아세안		중국과 캄보디아		중국과 라오스		중국과 미얀마		중국과 베트남	
	전체 무역액	무역수지	전체 무역액	무역수지	전체 무역액	무역수지	전체 무역액	무역수지	전체 무역액	무역수지
2001	41,614.73	-4,843.89	240.42	170.81	61.87	46.95	631.54	363.16	2,815.20	793.7
2002	54,765.92	-7,628.99	276.11	227.01	63.95	44.66	861.71	587.93	3,264.15	1,033.58
2003	78,252.36	-16,401.42	320.65	268.65	109.44	87.04	1,077.25	738.18	4,634.31	1,722.72
2004	105,879.77	-20,075.53	482.43	422.57	113.54	88.23	1,145.49	731.69	6,742.80	1,778.88
2005	130,370.06	-19,627.82	563.32	508.7	128.92	77.83	1,209.33	660.53	8,196.40	3,092.56
2006	160,839.70	-18,212.23	732.9	662.71	218.36	119.07	1,460.07	954.77	9,950.54	4,978.72
2007	202,548.27	-14,190.44	932.81	830.64	262.44	92.38	2,062.04	1,319.92	15,117.46	8,685.54
2008	231,219.70	-2,686.15	1,134.37	1,056.71	402.37	133.85	2,625.32	1,330.22	19,458.45	10,785.81
2009	178,185.40	-15,003.3	944.15	870.37	751.8	2.54	2,900.12	1,607.86	21,045.18	11,550.12
2010	232,013.20	-6,013.60	1,440.97	1,253.71	1,085.12	7118.87	4,442.07	2,508.97	30,086.08	16,117.00

\* 무역수지는 중국의 무역수지를 의미함 / Cheng(2014, 324)

광시와 CLMV 국가 간의 무역규모는 2001년에 비해 16배 가량 증가하였고, 동남아시아 국가가 광시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23%에서 2010년 37%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중국과 이 4개국 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그림 4> 2001-2010년 광시의 동남아시아 GMS 국가 간 무역규모



\* '전체대비비중'은 광시, 윈난의 무역총액에서 기타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광시와 미얀마, 태국, 라오스 간의 무역총액은 매년 수록되지 않음  
\*\* Cheng(2014, 325) 및 각 년도 『广西統計年鑒』를 참고함

## IV. GMS에 나타난 협력·경쟁 메커니즘

### 1. 국가적 차원에서의 GMS 협력

#### (1) 중국 중앙정부의 전략적 이해

중국 중앙정부의 메콩강 유역 사업에 관한 전략적 이해는 중국의 국가전략에 잘 드러나 있다. 이는 2009년 7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제기한 '교두보 전략(Bridgehead strategy, 橋頭堡戰略)'에 잘 반영되어 있다(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2011). 이 전략을 통해 중국은 서남지역의 개방

을 추진하고, 주변국들과 선린우호정책을 전개하며, 윈난성 변경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이 빈곤에서 벗어나 소강사회에 편입할 수 있게 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중국 중앙정부는 주로 교통, 전력, ICT, 농업, 환경, 보건, 관광, 인적 자원 개발, 무역 및 투자, 마약퇴치, 대체농작물, 과학기술, 인프라 및 댐 건설에 참여해 오고 있으며, GMS를 ‘윈난과 쿤밍의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한다(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2011). 또한, 이러한 지역협력을 통해 교통망 및 운송망을 구축하며 내륙에 위치한 윈난성과 다른 인접국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변경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중국은 GMS 국가들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오고 있다. “2010년 8월 제16차 GMS 각료급 회담에서 모든 GMS 국가들을 2020년까지 철도로 연결한다는 계획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 윈난성 국경도시인 모한(磨憨)에서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엔(Vientiane)까지의 철도 건설이 착공되었다. 중국과 태국은 고속철도 3개 노선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윈난성에서 말레이시아 국경까지 연결되는 철도를 상상하고 있다(조흥국 2012, 36).” 즉, 중국은 이러한 철도 건설을 통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국가와 경제적·정치적 관계를 돈독히 하고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sup>13)</sup>

이처럼 중국은 메콩강 상류지역인 윈난성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윈난성을 교두보로 삼아 윈난과 기타 인접국가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건설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경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邱贍揚·廖春花·明慶忠 2006, 122). 또한, 메콩강 유역 경제권 발전과정에서 구축된 교통망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국이 동남아시아에 관련

13) 윈난성 정부는 중국의 서남지역과 윈난의 경제발전 증진을 위해 중국과 주변국 간의 지역적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하고자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편 대체용 작물 플랜테이션, 해외원조, 차관, 육상루트 건설 추진[쿤밍-하노이, 쿤밍-만달레(미얀마)-양곤(미얀마)], 미얀마와 중국-미얀마 회랑 건설을 위한 협정 체결, 벵골만의 짜옥퓨(Kyaukphyu)-쿤밍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2013년 완공) 등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조흥국(2012)을 참고할 것.

생산기지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조홍국 2012, 36).

## (2) 중국 지방정부의 전략적 이해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국 지방정부는 1992년부터 참여한 윈난성 정부와 2005년부터 참여하게 된 광시좡족자치구 지방정부가 있다. 윈난성 정부는 투입한 시간과 지리적 이점, 후진타오 정부의 교두보 전략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1994년 윈난성 정부는 “1개 철도, 2개 고속도로, 공항 1개”를 건설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서부대개발 정책이 발표된 이후, 윈난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녹색경제, 민족문화, 중국과 동남아시아·남아시아를 잇는 국제통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을 전개해 왔다. 2001년에는 『란창강·메콩강의 상업항로에 관한 의정서(The Lancang-Mekong River Commercial Navigation Agreement)』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메콩강이 운송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 12월 윈난성은 ‘글로벌화’ 전략 실시를 위한 공작회의(“走出去”戰略的工作會議)를 개최하였다. 윈난성 정부는 외향형 지역협력을 크게 ‘국내’와 ‘해외’로 구분한다. 이는 범주강삼각주 지역협력에 참여하는 ‘국내’의 다른 지역과의 협력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와의 지역협력, GMS 경제협력에 참여하는 ‘해외’ 협력이다(邱臆揚·廖春花·明慶忠 2006, 121).

윈난성 지방정부는 쿤밍에서 하노이까지의 육상루트와, 쿤밍에서 미얀마의 만달레(Mandalay)를 경유하여 양곤까지 이르는 육상루트의 건설을 추진하였다(조홍국 2012, 36). 또한, 쿤밍에서 중국 국경도시 루이리(瑞麗)와 미얀마의 만달레를 경유하여 벵골만의 짜욱퉈(Kyaukpheu)까지 연결하는 중국-미얀마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는 2010년 6월 착공되었으며, 2013년 완공이 되었다. 중국은 총 25억 4천만 달러가 소요되는 중국-미얀마 파이프라인 건설을 통해 일거양득을 염두에 두었다. 첫째, 미얀마의 석유와 가스를 쉽게 수입하는 것과, 둘째, 미얀마를 경유지로 삼아 중동 및 아프리카의 석유 및 가스를 중국 내륙으로 공급하는 것이다(조홍국 2012, 36). 이 밖에도 남북경제회랑의 도로

개·보수 및 댐 건설 등에 참여하고 있다.<sup>14)</sup>

이처럼 윈난성 정부는 ‘교두보 전략’과 GMS 프로젝트가 중국의 서남 지역, 특히 윈난성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원한다. 또한, 변경지역의 안보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를 기대한다(김송죽 2013, 384). 또한, 이를 통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주변국의 지역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윈난성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메콩강 유역의 동남아시아 국가와 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정책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Lu & Chong 2010, i). 윈난성은 GMS 국가와 양자 간 무역과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아편대체작물 프로젝트와 원조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Lu & Chong 2010, i-ii).

**<표 4> GMS 협력과 관련된 주요 내용: 윈난성을 중심으로**

구분	주요 내용
11차 5개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적인 교통시스템 구축(철도, 도로, 항공, 해운)</li> <li>- 에너지</li> <li>- 중·아세안자유무역지대, 메콩강 유역 협력 증진</li> </ul>
12차 5개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개 중대한 전략적 임무에는 교두보전략을 실시하여, 대외개방의 신구면을 맞이해야 한다고 밝힘.</li> <li>- ‘1개 권역, 일대, 6개 그룹, 7개의 회랑’이라는 전략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 권역(一圈): 텐중성시경제권</li> <li>· 일대(一帶): 변경을 중심으로 한 대외 개방경제 추진(윈난성의 25개 현·시 포함)<sup>15)</sup></li> <li>· 6개 그룹(六群): 텐중핵심성시군 발전</li> <li>· 7개 회랑(七廊): 철도·도로·항공·해운 등의 종합적인 교통인프라 구축 및 발전. 대내외 7개 경제회랑 건설</li> </ul> </li> <li>- 현대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운수시스템 구축: 서남개방의 중요한 교두보 전략을 취하는 윈난성의 철도, 도로, 민간항공노선, 해운 건설</li> <li>- 에너지수급능력 강화</li> </ul>

\* 云南省人民政府(2006; 2011)

14) 댐 건설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요한(2014, 59-93), 이효찬(2014, 11-16), Urban, Frauke, Nordensvard, Johan, Khatri, Deepika and Yu Wang(2013, 301-324)의 논의를 참고할 것.

15) 변경 일대의 특색산업, 변경무역 발전, 변경지역을 통과하는 교통인프라 설비 추진, 국경 간 경제협력지대(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zones)와 국가중점개발구 개방시험구 건설, 5개 변경지역에 경제협력구의 건설.

중국의 메콩강 유역 개발 참여:  
초국경 경제협력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경쟁을 중심으로 57

원난성의 11차 5개년 계획과 12차 5개년 계획의 내용에서 GMS 협력이 모두 언급되었으며, 기초에는 큰 차이는 없다. 다만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원난성과 GMS 관련국과의 협력이 더욱 더 강조되고 관련 방안이 구체화되었다(<표 4> 참고).

2005년 광시장족자치구는 원난성에 이어 중국 내에서는 두 번째로 GMS에 참여하는 성급(지방정부) 파트너가 되었다.<sup>16)</sup> 광시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동남아시아 국가와 육상통로 및 수로가 모두 연결되는 지역으로,<sup>17)</sup> 광시자치구 정부는 이러한 GMS 협력 기제를 통해 광시가 아세안 5개국과의 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章遠新 2006).

원난성 정부의 11차 5개년 계획과 12차 5개년 계획에서 GMS 사업이 언급된 것처럼, 광시의 11차 5개년 계획과 12차 5개년 계획에서도 GMS 사업이 논의된 것을 볼 수 있다(<표 5> 참고).

**<표 5> GMS 협력과 관련된 주요 내용: 광시를 중심으로**

구분	주요 내용
11차 5개년 계획	- 대외개방과 국제협력 확대 방안으로의 메콩강 유역 개발 언급
12차 5개년 계획	- 개혁개방 실시를 통한 새로운 도약점 발굴 - 아세안과의 관계 활용 · 중·아세안 박람회, 비즈니스 포럼 및 투자 포럼 등, 범북부만경제협력 포럼, 중-아세안 FTA 등의 활동을 통한 중-아세안 '난닝 통로' 마련 - 지역협력 차원에서의 메콩강 유역 개발 언급 · 아세안 5개국, 범북부만, 메콩강 유역 개발, 중·베트남 '2개의 회랑 1개 권역' 등, 난닝-싱가포르 경제회랑 건설 추진, 중-베트남 국경 간 경제협력지대 건설

\* 广西壯族自治區人民政府(2006: 2011)

또한, 광시자치구 정부는 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역내 협력의 기반을 토대로 메콩강 유역 개발에 참여하고자 한다(广西壯族自治區人

16) 楊清 (2005), “次面臨重大發展機遇广西首次亮相GMS綜述”, [http://www.gxfzw.com.cn/news/news\\_show.asp?id=12504](http://www.gxfzw.com.cn/news/news_show.asp?id=12504). (2014년 12월 27일 검색)

17) 楊清 (2005), “次面臨重大發展機遇广西首次亮相GMS綜述”, [http://www.gxfzw.com.cn/news/news\\_show.asp?id=12504](http://www.gxfzw.com.cn/news/news_show.asp?id=12504). (2014년 12월 27일 검색)

民政府 2006; 广西壯族自治區人民政府 2011; 章遠新 2006). 특히 광시 지방정부의 이러한 관점은 범북부만경제권, 난닝-싱가포르 경제회랑, 광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지대 건설 등에 반영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중국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두보’ 전략을 활용하여 윈난성이 중국의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연결통로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내의 민족, 지역 간 격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개발사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지방의 업적을 세우기 위해,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정부의 자유주의’를 행사하기 위해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하에 지방정부는 성 및 자치구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가하고 있지만, 자금 등의 문제에 봉착하기도 한다.<sup>18)</sup>

## 2. 국제적 차원에서의 GMS 협력

아시아개발은행에서 GMS 투자 프로젝트를 발기한 이후 메콩강 유역 지역에서 교통, 통신 등의 기초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설비는 계속 진행됐다. 현재 윈난성의 고속도로는 변경국가의 항구에 도달하며, 윈난성과 GMS 국가 간 연결도로를 통해 태국과 라오스와의 경제무역이 매우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sup>19)</sup> 이를 통해 윈난성의 주변 국가에 대한 투자가 증진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윈난성의 해외투자 및 대외무역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윈난성의 경제도 서서히 ‘외향형’에 가까워지고 있는 추세이다.<sup>20)</sup> 윈난성은 GMS, 중국-아세안과의 협력, 미얀마, 베트남과의 협력 등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범아시아 철도는 윈난성-베트남, 윈난성-변경철도 등의 노선으로 준

18) 윈난성 사회과학원 동남아연구소 전문가 인터뷰(2014. 11. 5.)

19) 윈난성 상무청 관계자 인터뷰(2014. 11. 4.)

20) 윈난성 상무청 관계자 인터뷰(2014. 11. 4.)

비되고 있으나, 아직 그 형태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리(大理), 바오산(保山) 등을 경유하여 미얀마에 도달하는 철도가 있다. 따리 구간은 이미 개통되었고, 바오산 역시 완공되었으나, 미얀마 부분이 아직 건설 중이다. 미얀마는 다소 의지가 낮은 편인 것으로 보이며, 라오스와 태국은 이미 비준되었으나 자금능력이 떨어져 진행이 더디다. 이는 중국과 라오스 간의 입장 차이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라오스는 다른 나라, 특히 중국이 차관을 해주기를 원하나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용자를 위해서는 중국은행이 차관을 해주어야 하기에 리스크가 상당히 큰 편이다. 라오스 정부는 ‘계약 시공 및 운영 후 소유권 이전 계약(Build-Operate-Transfer)’의 방식, 즉, 먼저 프로젝트를 건설한 후 해당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를 취했다. 중국 정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라오스 정부가 중국에 상환하는 형태로 이를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방식 역시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어 중국 정부로서는 원하는 프로젝트이나, 관련 기업은 참여를 원하지 않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결국 ‘투자를 하여 어떻게 투자금액을 회수하고 이윤을 얻어낼 수 있을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원난성과 라오스는 빠른 시일 내에 용자 문제가 해결되고, 원난성-태국(라오스 경유) 구간 역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미얀마와는 아직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sup>21)</sup>

메콩강 유역 개발은 아시아개발은행이 발기한 프로젝트이나, 이를 주도하는 ‘핵심국가’가 없다. 이해관계나 자금상황 등에 따라 이 프로젝트 참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국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 원난성도 투자하는 부분이 있으나, 중앙정부나 국영기업이 투자의 중심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주요 투자분야는 광산, 전력망 등으로, 도로, 수로, 항해수송, 발전소, 가공공업, 농업, 기초설비 투자 등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되거나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형태가 많다. 이외에도 민간기업이 소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성(省) 정부는 기업을 통해 라오스 경제개발투자구나 태국 개발구에 투자 역시 진행하고 있다.<sup>22)</sup> 이처럼

21) 원난성 사회과학원 동남아연구소 전문가 인터뷰(2014. 11. 5.)

22) 원난성 사회과학원 동남아연구소 전문가 인터뷰(2014. 11. 5.)

중국 정부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정부는 메콩강 유역 개발이 자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자국의 외교적 실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3. 초국가적 차원에서의 GMS 협력

메콩강 유역 경제권 사업은 아시아개발은행 주도로 시작된 만큼, 아시아개발은행이 사업 초기부터 협력 전략을 수립해 오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1993년 『메콩강 유역에서의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중국 윈난성의 협력 가능성(次區域經濟合作-關於柬埔寨, 老撾, 泰國, 越南和中國云南省進行合作的可能性)』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윈난성이 메콩강 유역에서 협력 가능 방안을 고찰하였다. 1994년에는 ‘중국의 21세기 아젠다(中國21世紀議程)’를 발표하여 9개 부문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란창강·메콩강 중국 변경지역의 개발계획을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1992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GMS 국가의 장관회의(GMS Ministerial Conference)는 ‘협력’의 장으로서 메콩강 유역 개발의 이해당사자인 6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이다. 중국은 1995년 개최된 제5차 GMS 장관급 회의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중국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윈난성 지방정부’ 수준의 행위로 간주하였으나, 1995년 이후에는 단순히 지방정부 차원이 아니라 중국 대표자로서 윈난성이 참여하는 것으로 중국 중앙정부가 메콩강 유역 경제발전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1996년 6차 회의에서 메콩강 유역 개발사업 참여 항목이 포함되었다. 1998년 8차 장관회의에서 남북, 동서, 남부의 경제회랑 중심의 개발 전략 등이 수립되었다(이효찬 2014, 12).

2001-2002년에는 ‘향후 10년 메콩강 유역 경제협력 전략 프레임워크(未來10年合作戰略框架)’가 논의되었고, 3중 2회 전략하에 ‘남북회랑, 동서회랑, 남부회랑’ 등의 경제회랑을, 5개의 전략적 방향과 9개의 협력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경제회랑, 동서경제회랑, 남부경제회랑, ICT망 구축, 전력망 및 무역, 국경 간 무역투자 편리화, 인력자

중국의 메콩강 유역 개발 참여:  
 초국경 경제협력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경쟁을 중심으로 61

원 개발, 환경전략, 홍수 방지, 여행업 활성화 등 11개 부문에서 플래그십(flagship)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표 6> GMS 장관급 회의(GMS Ministerial Conference) 개최 현황 및 주요 의제

회차	시기	장소	주요 의제
1	1992. 10.	아시아 개발은행	· GMS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체제 기본합의 · 최우선 과제로 인프라 개발 설정
2	1993. 8.	아시아 개발은행	· 제2단계 활동계획 승인 · 우선과제로 도로 건설 합의
3	1994. 4.	베트남 하노이	· 운수, 에너지, 인적자원개발, 무역 및 투자, 관광 등 타당성 조사 승인 · 분야별 우선프로젝트 승인 · 고위급 협의 확인
4	1994. 9.	태국 치앙마이	· 수송과 에너지 분야 보고서 최종안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수송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제도적 협력 강화 · 도로 9, 철도 8, 수운 10, 항공 6, 운수체제 1 등 34개의 우선추진사업 결정
5	1995. 11.	아시아 개발은행	· 환경, 인적자원, 무역 및 투자, 관광 등의 조사보고 승인 · 자금조달문제 협의
6	1996. 8.	중국 쿤밍	· 각 분야의 우선프로젝트 세부논의
7	1997. 4.	아시아 개발은행	· 민간자본 동원과 'GMS 2020' 논의 · 원조공여기관과 민간분회의 의제선택
8	1998. 9.	아시아 개발은행	· GMS Indicative Work Program(1998-2000) 논의 · 국경 간 재화와 인력이동 자유화관련 협정문과 일정 등 협의 · 경제회랑 설정 논의
9	2000. 1.	아시아 개발은행	· 4대 핵심전략(경제회랑 건설, 국경개방, 환경보전, 빈곤 감축) 도입 · 국경 간 재화와 인력이동 원활화 기본협정 일정 마련 · 메콩강 상류국가 간 상업용 수운협정 합의 · 아시아개발은행의 역할 강화와 민간자본유치 활성화 방안 논의
10	2001. 11.	미얀마 양곤	· GMS 10년 평가와 향후 10년간 중점추진 프로젝트 선정 (9개 핵심선도 이니셔티브 선정) · GMS 정상회의(Mekong Summit) 개최 합의 · 아시아개발은행 내 메콩강 개발 전담부서 및 각국의 GMS 사무국 설치 · 국경 간 재화·인력이동 원활화 기본협정에 캄보디아 가입

11	2002. 9.	캄보디아 프놈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MS 정상회의 의제 선정</li> <li>· GMS 프놈펜 플랜 채택</li> </ul>
12	2003. 9.	중국 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경 간 재화·인력이동 원활화 기본협정에 미얀마 가입</li> <li>· 고위급 회담(SOM) 역할 강화</li> <li>· GMS Mineral Prospecting Risk Fund를 창설</li> <li>· 제1차 GMS Summit 주요 의제 이행 촉구</li> </ul>
13	2004. 12.	라오스 비엔티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경 간 재화·인력이동 활성화를 위한 GMS 국경 운송 협정(the GMS Cross-Border Transport Agreement (CBTA)) 심화</li> <li>· 에너지 수송 라인 활성화</li> <li>· 정보(the Information Superhighway Network (ISN))</li> <li>· 생물다양성 확보 방안 논의</li> </ul>
14	2007. 6.	필리핀 마닐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남 경제회랑 메콩강 다리(International Mekong River Bridge, Houayxay-Chiang Khong) 건설 추진계획 발표</li> <li>· GMS 농촌 재생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및 완성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바이오연료, 농업폐기물 등의 역할 강화를 통한 농촌 경제 부흥)</li> <li>· 메콩 방문의 해(2009-2010) 추진</li> </ul>
15	2009. 6.	태국 차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MS in the Next Decade: New Frontiers of Cooperation”</li> <li>· 재생가능한 에너지, 청정한 연료, 에너지 효율성 추진</li> </ul>
16	2010. 8.	베트남 하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결성’을 주요 의제로 선정</li> <li>· GMS 철도 시스템의 통합화 추진</li> <li>· ICT 발전목표 프레임워크: 전자상거래로의 전환</li> <li>· 생물다양성 보존 이니셔티브(2012-2016) 프레임워크 제출</li> </ul>
17	2011. 8.	캄보디아 프놈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MS 경제회랑 20주년</li> <li>· 인적 자원 개발의 전략적 프레임워크와 행동방안 (2013-2017) 논의</li> </ul>
18	2012. 12.	중국 난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시작, 새로운 발전: GMS 개발 20년(New Start, New Progress: Building on Two Decades of the GMS Program)”</li> </ul>
19	2013. 12.	라오스 비엔티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투자전략 활성화</li> <li>· GMS 철도협회 설립을 위한 이해각서</li> </ul>

\* 정재원(2003, 67 재인용); Asian Development Bank; ASEAN-China Free Trade Area

이와 함께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다섯 차례 개최된 GMS 정상회의는 중국 정부가 GMS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로 부각될 수 있는 기회이자 새로운 국제적·초국가적 논의의 장이 되었다. 2002년에 열린 제1차 GMS 정상회의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었고, 3년 후인 2005년에는 중국 윈난성 소재 쿤밍시에서 제2차 GMS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 주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도 하였으며, 경제적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2006년부터 서서히 ‘참여자’에서 ‘후원자’로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메콩강 유역 교통부문의 전략(2006-2015)』에서는 2007년까지 중국이 아시아개발은행의 34개 차관 프로젝트 중 8개에 참여하여 약 5.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는 아시아개발은행 전체 차관의 약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중국은 2.6억 달러(전체 차관액의 26%, 정부자금의 86.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기로 하였다(Asian Development Bank N. d.). 이로써 중국은 어느 GMS 국가보다 훨씬 많은 금전적 기여를 하게 되었다(Fu 2009).

2008년 제3차 GMS 정상회의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는 GMS 국가 간 협력관계의 강화가 논의되었다. 또한, 중국이 인적 자원 개발, 무역, 투자 활성화, 통신기술 발전 등에 관한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GMS 개발을 위한 비엔티안 행동계획(2008-2012)』도 도입되었다.

2011년 제4차 GMS 정상회의는 미얀마의 네피도(Nay Pyi Taw)에서 개최되었으며, GMS 전략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2012-2022년을 위한 새로운 GMS 전략 프레임워크』를 통해 관광 부문으로 ‘재집중’ 혹은 ‘재확대’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제3차 회의에서 다소 미흡하게 다루어진 부문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어 2014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5차 GMS 정상회의에서는 교통·무역 활성화를 위한 경제지대 등을 통한 경제회랑을 발전시키는 주제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었다.

&lt;표 7&gt; GMS 정상회의 개최 현황 및 주요 의제

회차	개최시기	개최지역	주요 논의내용
1	2002. 11.	캄보디아 프놈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과 투자에 유리한 환경, 경제 성장과 사회적 웰빙 상당 부분 마련</li> <li>- 교통, 에너지, 통신, 인적 자원 개발, 관광, 환경, 무역, 투자 등에 2조 달러 투자됨</li> <li>- HIV/에이즈, 마약 밀매와 관련된 프로젝트 10개에 7억 달러 투자됨</li> </ul>
2	2005. 7.	중국 쿤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GMS Health Forum 제기</li> <li>· 의료, 건강, 교육, 문화 등 부문에의 인적 자원 개발 훈련 강화</li> <li>· 중국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li> </ul>
3	2008. 9.	라오스 비엔티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lan of Action for GMS Development, 2008-2012(교통, 에너지, 통신, 농업, 환경, 관광, 인적자원개발, 무역 활성화, 투자)</li> <li>- 식량안보, 식량가격 안정화, 농업정책과 식량안보와의 관계, 식량안보에 있어서의 메콩강 유역 경제권 협력<sup>23)</sup></li> </ul>
4	2011. 12.	미얀마 네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Beyond 2012: Towards a New Decade of GMS Strategic Development Partnership”</li> <li>· 신 GMS 전략 프레임워크(2012-2022) 승인</li> <li>· GMS 관광 전략</li> <li>· 통합 농업지 지 프로그램 2단계</li> <li>· 생물다양성 및 보존 전략(2012-2016)</li> <li>- HIV/에이즈 확산 감소</li> <li>- GMS Information Superhighway 설립 협력 추진</li> <li>- the GMS Freight Transporters’ Association 추진</li> </ul>
5	2014. 12.	태국 방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Committed to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GMS”</li> <li>· 지역 투자 프레임워크 실행계획(2014-2018)</li> <li>· 고위급 정치인 협조 요청</li> <li>- 전략방향에 관한 논의의 틀 마련</li> </ul>

23) 地區司區域政策處區域合作處(2008), “中國政府積極準備參加大湄公”, [http://special.yunnan.cn/index/content/2008-08/03/content\\_53207.htm](http://special.yunnan.cn/index/content/2008-08/03/content_53207.htm). (2014년 12월 27일 검색)

아시아개발은행 외에도 1995년 설립된 정부 간 기구(inter-governmental agency)인 메콩강 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가 활동하고 있다(Mekong River Commission, N.d.).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이 참여한 이 위원회는 메콩강 유역 개발에 참여하는 국가 가운데 중국만이 이 위원회에 유일하게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중국은 정회원(member)이 아닌 옵서버(observer)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어, 메콩강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는 의무가 없으며, 메콩 하류 국가와의 정보 제공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요한 2014, 74). 아시아개발은행과 메콩강 위원회는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며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해당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동시에 해당 기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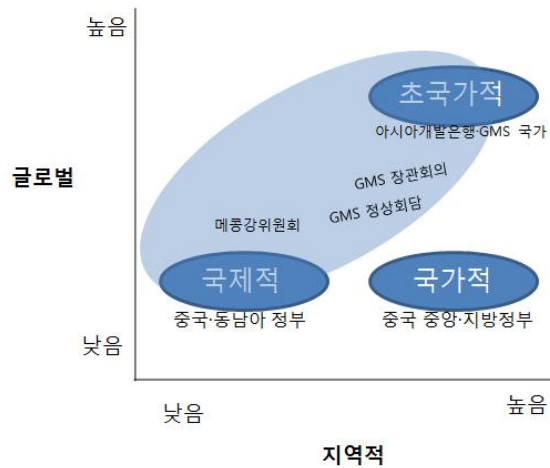
## V. 결론: 요약과 함의

메콩강 유역 경제권 개발은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걸쳐 있는 초국경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은 중국이 메콩강 유역(GMS) 개발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이익을 둘러싸고 ‘협력’과 ‘경쟁’ 메커니즘을 동시에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GMS 개발에 참여하는 주체는 중국 중앙정부·지방정부와 동남아 국가의 중앙정부·지방정부, 국제기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들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위해 개발에 참여하며 중국과 동남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오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중국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의 행사권을 어느 정도 이임을 받고 지방의 대표자로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서로의 이해관계를 위해 노력하되 상생을 꾀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윈난성과 광시가 중국의 동남아 진출 교두보이자 중국이 동남아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비해, 윈난성과 광시는 내륙지역에 위치하여 경제적 발전이 더딘 단점을 극복하고자 중국과 동남아와 인접해 있는 변경지역의 개발 등을

우선순위로 삼아 ‘교두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메콩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오고 있다.

<그림 5> 국가적·국제적 초국가적 차원: GMS 협력을 만드는 장



국제적 차원에서는 중국 정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정부는 이 지역 개발 발전과정에서 대립하는 이해관계가 내재되어 있으나, 메콩강 유역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과 아시아개발은행, 메콩강 위원회는 경쟁에 경도되기보다는 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초국가적 차원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때로는 공동의 목표를, 때로는 자국의 목표를 위해 매진하는 ‘장’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이 발기한 프로젝트이기에 장관회의, 정상회담에서도 아시아개발은행의 역할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국제적 차원과 초국가적 차원은 ‘공유’하는 울타리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메콩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자국(지역)의 이익을 제고하며 협력하는 장(場)이라고 분석하였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중국이 메콩강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대내 발전과 대외 발전, 향후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서부대개발, 교두보전략 등을 활용한 윈난과 광시의 지역발전전략에의

관점이다. 중국은 대 서남경제권, 윈난경제권을 구상하였고, 이와 관련된 논의(김정인·최동주 1998, 204)도 진행해 왔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GMS 협력과 연결되는데 이러한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중국의 이해당사자인 윈난성과 광시장족자치구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둘째, GMS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셋째, 향후 잠재 가치와 이 지역의 활성화 측면이다. 메콩강 상류에 위치한 윈난성은 메콩강 수자원 개발의 잠재력 외에도 국제수운을 통한 무역 및 관광 진흥의 전망도 매우 밝다(김정인·최동주 1998). 이 두 가지 이유는 국제적, 초국가적 차원의 GMS 협력과 직결되며, ‘균형적으로’ 협력을 촉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GMS 개발에 있어 경쟁관계에 놓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메커니즘 속에서 중국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국은 국가적 차원을 제일 중요한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나, 암묵적으로는 지역 내 입지를 확고히 하며 이를 통해 국제적·초국가적 차원에서의 자국의 영향력 확대 및 중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양승윤·이요한은 이 지역이 중국에게 있어 어떠한 잠재적인 가치를 가져오고, 이는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관해 “동남아는 중국에 있어 상호보완성을 가진 경제협력체이며, 동남아의 화교 또는 현지화된 중국인 소수종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경제력도 양자 관계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양승윤·이요한 1997, 10).”고 전망하였다. 이처럼 GMS 개발에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경쟁이 공존한다. 또한, GMS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송망과 교통 인프라의 연계작업은 무역 증대를 가져옴과 동시에 동남아에 거주하는 현지 화교경제권의 확대 및 재구성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이는 향후 연구에서 고찰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의 동북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과의 경제협력, 서부지역 등의 접경지역 다국적 경제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국가적 차원, 국제적 차원, 초국가적 차원의 분석 틀은 국경 간 경제협력과 지역 간 경제협력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sup>24)</sup> 물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틀이 모든 다국적 혹은 지역

간 경제협력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으며, 이는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변용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공통목표인 역내외 경제협력을 목표로 설정하며, 이러한 지역들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과 함께 외교안보적·사회적 이슈 등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경제적·외교적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4) 이는 익명의 심사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한 부분으로, 이론적 논의 확대를 위한 조언에 감사드린다.

## | 참고문헌 |

- 기상석 문홍호 (2005). “중국의 중앙과 지방관계.” 『국제학원우론집』. 제5호, pp. 7-37.
- 김수한 (2014). “북중 초국경 협력의 지속과 변화-최근 경제특구 구상과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2권. 제4호, pp. 105-134.
- 김송죽 (2013). “중국-미얀마 송유관 건설의 정치적 배경 및 효과.” 『국제정치논총』. 제53집. 제4호, pp. 369-400.
- 김선자 (2011). “중국 남부 소수민족 신화에 나타난 꽃의 여신과 민속, 그리고 서천꽃밭.” 『비교민속학』. 제45집, pp. 125-171.
- 김정계 (2003). “중국 중앙과 지방관계의 전통: 지속과 변화.” 『사회과학연구』. 제3권. 제1호, pp. 69-98.
- 김정인 최동주 (1998). “메콩강유역 개발사업과 환경 자원 갈등.” 『동남아시아연구』. 제6호, pp. 193-217.
- 김홍구 박장식 (2000). “메콩강 하류유역국가의 지역협력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4권. 제2호, pp. 1-45.
- 류석춘 최진명 (2012). “메콩강유역개발사업을 통해 본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 지역협력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1권. 2호, pp. 137-173.
- 류성민 (2010). “중국 윈난성(云南省)의 종교 공존 상황에 대한 연구.” 『종교연구』. 제60집, pp. 149-193.
- 류인선 (2012). “1720년대 청(淸)과 베트남 레 왕조(黎朝) 간의 운남(雲南) 변경(邊境) 영유권 논쟁.” 『동양사학연구』. 제124집, pp. 155-178.
- 무용웨이 양원순 예동근 (2011). “정부 거버넌스 아래의 민족문화 다양성과 조화 사회 건설: 중국 운남 사례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제5권. 제1호, pp. 121-133.
- 박상수 (2011). “중국의 서부대개발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한국국제지역학회보』. 제1권, pp.133-148.
- \_\_\_\_\_ (2002). “중국의 서부대개발에 대한 연구: 서부지역에 대한 진출가능성 평가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30권, pp. 483-497.
- 박승찬 (2009). “중국 광서북부만 경제권의 성장과 경쟁력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7권. 제1호, pp. 131-158.
- 산업자원부 중국협력기획단 (2003). 『서부대개발사업 현황』.
- 손대권 이경진 이진상 (2013). “중국 서부의 지역별 투자적합도 및 투자 현황

- 비교분석: 한국과 대만 사례를 중심으로.” 『CHINA 연구』. 제15집, pp. 109-148.
- 심상형 (2013). “메콩 무한 잠재력의 상징.” 『Chindia Plus』. June/July, pp. 10-13.
- 심의섭 (1997). “메콩강 개발사업과 경제적 평가.” 『동북아경제연구』. 제9권. 제1호, pp. 67-99.
- 양승윤 이요한 (1997). “메콩강개발과 동남아 지역협력 전망.” 『국제지역연구』. 제1권. 제2호, pp. 3-21.
- 유장근 (2011). “현대 중국의 상그리라 만들기와 그 의미.” 『中國近現代史研究』. 제49집, pp. 1-32.
- 이동률 (2013). “중국 초국경협력의 현황과 과제: 중국의 초국경 소지역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평화와 초국경협력: 남북한 중리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pp. 181-205.
- 이선진 (2010). “중국과 동아시아: 메콩강 유역개발계획과 중국, 일본의 경쟁.” 『동아시아 브리프』. 제5권. 제1호, pp. 56-62.
- 이요한 (2014). “메콩유역 수자원 개발과 라오스의 전략적 포지셔닝.” 『국제·지역연구』. 제23권. 제2호, pp. 59-93.
- 이효찬 (2014). “메콩강 유역 경제권의 현황과 향후 진출 시사점.” 『주간 금융경제동향』. 제4권. 제4호, pp. 11-16.
- 정재완 (2003). “메콩강 유역개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제12차 Ministerial Conference를 중심으로.” 『세계경제』, pp. 62-70.
- 정환우 (2009). “중국의 광서북부만경제권 개발계획과 진출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조대현 (2011). “메콩강 경제권에 외자 대거 유입: 미·중·일, 시장 선점 위해 총력.” 『Chindia Journal』. 4월호, pp. 69-71.
- 조윤수 (2000). “중국의 대(對)메콩강유역개발정책 및 그 의의.” 『국제지역연구』. 제4권. 제2호, pp. 145-175.
- 조흥국 (2012).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위협.” 『CHINA연구』. 제13권, pp. 31-52.
- 허홍호 (2013). “중국 ‘범주강삼각주 경제권’의 형성과 발전.” 『산업경제연구』. 제26권. 제1호, pp. 451-471.
- 원난성 사회과학원 동남아연구소 전문가 인터뷰(2014. 11. 5.)
- 원난성 상무청 관계자 인터뷰(2014. 11. 4.)
- ASEAN-China Free Trade Area (2009) “The First GMS Summit, Phnom

- Penh.” <http://www.asean-cn.org/Item/581.aspx>. (accessed on January 9, 2015)
- Chen, Xiangming & Curtis Stone (2013). “The PRC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Econom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http://www.asiapathways-adbi.org/2013/10/the-prc-in-the-greater-mekong-subregion-economic-and-political-implications>. (accessed on January 9, 2015)
- Cheng, Joseph Y. S (2013). “China-AS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Role of Province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 43. No. 2, pp. 314-337.
- Chin, Ko-Lin (2009). *The Golden Triangle: Inside Southeast Asia's Drug Trad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Deutsche Bank Research (2015a). “Emerging Markets: China Chartbook: Guangxi.”
- \_\_\_\_ (2015b). “Emerging Markets: China Chartbook: Yunnan.”
- Fu, Ruihong (2009). “GMS Cooperation's Evolution and China's Role in it.” *Around Southeast Asia*. Vol. 5.
- Goh, Evelyn (2004). “China in the Mekong River Basin: The Regional Security Implications of Resource Development on the Lancang Jiang.” *Institute of Defense and Strategic Studies(IDSS)*.
- Goh, Evelyn. (2014). “The Modes of China's Influence: Cases from Southeast Asia.” *Asian Survey*. Vol. 54. No. 5, pp. 825-848.
- Li, Mingjiang (2014). “Local Liberalism: China's Provincial Approaches to Relations with Southeast Asi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23. No. 86, pp. 275-293.
- Lim, Tin Seng (2008). “China's Active Role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a “Win-win” Outcome?” *EAI(East Asian Institute) Background Brief*. No. 397, pp. 1-19.
- Lu, Guangsheng & Catherine Siew Keng Chong (2010). “Yunnan-GMS Economic Cooperation in the Context of “Ridgehead Strategy.”” *EAI Background Brief*. No. 566.
- Mekong River Commission (N. d). <http://www.mrcmekong.org/about-mrc>. (accessed on December 27, 2014)
- Menniken, Timo (2007). “China's Performance in International Resource Politics: Lessons from the Mekong.” *Contemporary Southeast Asia*

- Vol. 29, pp. 97-120.
- Onishi, Kayo (2007). "Interstate Negotiation Mechanisms for Cooperation in the Mekong River Basin." *Water International*. Vol. 32. No. 4, pp. 524-537.
- Summers, Tim (2013). *Yunnan-A Chinese Bridgehead to Asia: A Case Study of China's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with Its Neighbours*. Oxford: Chandos Publishing.
- Urban, Frauke, Nordensvard, Johan, Khatri, Deepika & Yu Wang (2013). "An Analysis of China's Investment in the Hydropower Sector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Environment,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Vol. 15. No. 2, pp. 301-324.
- Zhu, Zhenning. (2010). "Mekong Development and China's (Yunnan) Participation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Cooperation." *Ritsumeikan International Affairs*. Vol. 8, pp. 1-16.
- 廣西壯族自治區人民政府 (2006). 『廣西壯族自治區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个五年规划綱要』.
- \_\_\_\_\_ (2011). 『廣西壯族自治區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个五年规划綱要』.
- \_\_\_\_\_ (2011). 规划綱要根据. "中共廣西壯族自治區委員會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个五年规划的建議." 『廣西壯族自治區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个五年(2011-2015年)』.
-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2011). 『雲南省加快建設面向西南開放重要橋頭堡總体规划(2012-2020年)』.
- 地區司區域政策處區域合作處 (2008). "中國政府積極准備參加大湄公." [http://special.yunnan.cn/index/content/2008-08/03/content\\_53207.htm](http://special.yunnan.cn/index/content/2008-08/03/content_53207.htm). (2014년 12월 27일 검색)
- 中國統計出版社 (2013). 『雲南統計年鑒2012』.
- 邱臆揚 廖春花 明慶忠 (2006) "雲南參與泛珠, 瀾一湄次等多重外向區域科技合作的區位優勢對雲南產業結構的影響与發展措施." 『經濟問題探索』, 第1期, pp. 121-125.
- 楊清 (2005). "次面臨重大發展机遇廣西首次亮相GMS綜述." [http://www.gxfzw.com.cn/news/news\\_show.asp?id=12504](http://www.gxfzw.com.cn/news/news_show.asp?id=12504). (2014년 12월 27일 검색)
- 雲南省人民政府 (2006). 『雲南省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个五年规划綱要』.
- \_\_\_\_\_ (2011). 『雲南省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个五年规划綱要』.
- 章遠新 (2006). 『大湄公河次區域經濟合作与廣西』, 成都: 電子科技大學出版社.

중국의 메콩강 유역 개발 참여:  
초국경 경제협력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경쟁을 중심으로 73

Asian Development Bank([www.adb.org](http://www.adb.org)).

Asian Development Bank GMS Statistics([www.gms-eoc.org](http://www.gms-eoc.org)).

CEIC Database(<http://www.ceicdata.com>).

Google maps(<https://www.google.co.kr/maps>).

| 논문투고일 : 2015년 01월 21일 |

| 논문심사일 : 2015년 03월 09일 |

| 게재확정일 : 2015년 03월 21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2, No. 1 (2015)

## **China's Engagement with GMS: Co-production, Cooperation, Competition**

**Claire Seungeun Le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The Greater Mekong Subregion(hereafter, GMS) is consisted of five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Thailand, Cambodia, Laos, Myanmar, Vietnam and China's Yunnan Province and 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 The GMS project has started as part of Asian Development Bank in 1992. Its aim was to build a united economic region in order to ha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reduce poverty, develop human resources, trade and investment via "Connectivity, Competitiveness, Community." Yunnan has been participating in this since 1992. Guangxi is a latecomer which started from 2005 only. This plays an important role in China's involvement in regional cooperation with Southeast Asia.

This paper explores the ways in which diverse stakeholders use a simultaneously "cooperative" and "competitive" mechanism in the process of the GMS development. By doing so, this article analyzes relevant policies and projects and provides implications. Involving parties in the GMS include Chin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se five Southeast Asian countrie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y act as "bridges"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 for their own interests. This article analyzes the GMS cooperation as a field of co-production and mutual interests among several stakeholders.

중국의 메콩강 유역 개발 참여:  
초국경 경제협력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경쟁을 중심으로 75

- Key words: Greater Mekong Sub-Region, China, Southeast Asia, Regional Cooperation, Stakeholder